

프로야구 1위 SSG와 7개팀 대혼전 예고... '불과 2.5경기차'

SSG, 팀타율 0308 기록 홈런 8개 '타선 대폭발' 7연승 키움, 올시즌 전패 KIA 만나 설욕전 준비

SSG 랜더스가 1위(5월23일 기준)로 올라선 가운데 KBO리그가 시즌 초반 치열한 순위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1위부터 7위 NC 다이노스(21승 20패)까지 승차가 2.5경기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치열하다.

SSG는 지난주(5월17일~23일) 6경기 치러 5승 1패의 좋은 성적을 올렸다. 최근 5연승을 달린 SSG는 시즌 23승 17패를 기록해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SSG는 지난주 타선이 대폭발했다.

팀타율이 0.308를 기록할 정도로 뜨거웠다. 홈런도 8개나 집중했다.

SSG 최지훈은 지난주 0.464의 고타율을 기록했으며, 최정은 2홈런을 포함해 7타점을 쓸어담았다. 제이미 로맥 역시 타율 0.368를 기록했고, 추신수는 타율 0.350에 8타점을 기록했다.

선발진에서는 오일석, 박종훈, 윌버 폰트 등이 호투를 펼쳐 SSG의 승리를 이끌었다.

SSG는 26일부터 수원에서 KT 위즈와 2연전을 치른 후 주말 대전으로 이

동해 한화 이글스와 자웅을 겨룬다.

키움은 최근 7연승을 달렸다. 지난주 5승 무패를 기록했다. 시즌 23승 19패를 기록한 키움은 4위에 올라 선두권을 위협하고 있다.

돌아온 제이브 브리검과 에이스 에릭 요키시가 선발 마운드를 이끌었고, 김혜성은 지난주 6할 타율을 기록하며 타격감을 뽐냈다.

키움 이정후는 지난주 4할대 타율을 마크했고, 박동원은 3개의 홈런을 때려내 키움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키움은 광주에서 KIA 타이거즈와 맞대결을 벌인 후 서울로 올라와 잠실에서 LG 트윈스와 3연전을 치른다.

올해 KIA전에서 3전 전패를 당한 키움은 설욕전을 노리고 있다.

삼성(24승 18패)은 지난주 3승 3패를 기록해 SSG에 승차 없이 승률에서 밀려 2위를 달리고 있다.

삼성은 선발과 불펜이 난조를 보여 1위 자리를 빼앗겼다. 특히, 어깨 통증으로 전열에서 이탈한 벤 라이블리의 공백이 치명적이다. 라이블리는 올해 1승도 올리지 못했다.

KT(22승 18패)는 3위를 달리고 있지만, 최근 타격감이 좋지 않다. 강백호, 배정대, 심우준을 제외하면 믿을 만한 타자가 없다. 조일로 앞문테는 시즌 초반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위 두산(21승 19패)은 에이스 워커 로켓과 잠수함 선발 최원준을 앞세워 반등을 노리고 있다. 최근 타선이 다



소 주춤했지만, 시즌 팀타율은 0.280으로 여전히 1위다.

반면, LG는 지난주 2승 5패로 부진했다. 특히, LG는 지난 21일 SSG전에

서 실책으로 당한 끝내기 패배가 충격이 컸다. 최근 4연패를 당한 LG는 시즌 22승 20패를 기록해 6위에 자리했다.

뉴스

손흥민·황의조·황희찬 등 유럽파, 벤투호 소집

이기제·정상빈·강상우·송민규 첫 A대표팀 승선



손흥민(토트넘), 황의조(보르도), 황희찬(라이프치히)으로 이어지는 유럽파 공격수들이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을 위해 모인다. 2002년 정상빈(수원 삼성)도 깜짝 발탁됐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24일 다음달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 일정을 앞두고 소집명단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공격 라인에 유럽파 주축들이 대거 합류했다.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17골 10도움으로 데뷔 후 최고 활약을 펼친 손흥민과 프랑스 리그앙의 황의조, 독일 분데스리가의 황희찬, 권창훈(프라이부르크)이 이름을 올렸다.

분데스리가 승강 플레이오프를 앞둔

이재성(홀슈타인 킵) 역시 미드필더 자원으로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지난 3월 한일전에서 불렀던 이강인(발렌시아)은 같은 시기 소집하는 올림픽대표팀에 보였다.

대신 원두재, 이동경(이상 울산), 송민규(포항) 등 김학범호 승선이 유력한 일부 선수들은 월드컵 예선의 중요성을 감안해 선발됐다.

송민규는 첫 A대표팀 승선이다.

중국 슈퍼리그에 진출한 장신 공격수 김신욱(상하이 선화)과 수비수 김민재(베이징 궈안)도 선발됐다.

또 올 시즌 K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기제와 정상빈(이상 수원 삼성), 강상우(포항)를 발탁해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축구대표팀은 북한의 불참으로 다음달 레바논, 투르크메니스탄, 스리

◇축구대표팀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소집 명단(28명)

▲GK = 조현우(울산) 김승규(가시와 레이솔)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구성윤(김천)

▲DF = 김영권(김포 오사카) 원두재(울산) 박지수(수원FC) 김영민(강원) 김민재(베이징 궈안) 김태환(울산) 이용(전북) 김문환(LA FC) 홍철(울산) 이기제(수원)

▲MF = 강상우(포항) 남태희 정우영(이상 일사드) 손준호(산둥 타이산) 이재성(홀슈타인 킵) 권창훈(프라이부르크) 이동경(울산) 송민규(포항) 나상호(서울) 황희찬(라이프치히)

▲FW = 김신욱(상하이 선화) 황의조(보르도) 정상빈(수원)

랑카와 잔여경기 일정을 소화한다.

2차 예선은 원래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열렸지만 코로나19로 계속 연기된 끝에 조별로 특정 국가에서 잔여경기를 치르는 것으로 변경됐다. H조는 한국에서 일정을 마치기로 했다.

벤투호는 다음달 5일 오후 8시 투르크메니스탄과 첫 경기를 갖고, 9일 오후 8시 스리랑카, 13일 오후 3시 레바논과 차례로 상대한다. 모든 경기는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2차 예선 8개조에서 1위를 차지한 8팀과 각조 2위 중 상위 성적 4팀이 최종예선에 진출한다.

벤투호는 이달 31일 파주NFC에서 소집할 예정이다.

뉴스

이강인, 벤투호 대신 김학범호로...백승호·이승우 합류

이강인, 올림픽대표팀 첫 소집 31일부터 제주도서 소집훈련



이강인(발렌시아)이 김학범 감독의 품에 안겼다.

7월 도쿄올림픽을 겨냥해 마지막 훈련과 평가전을 앞둔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이강인을 포함한 훈련 명단을 확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4일 파주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올림픽 대표팀의 6월 소집훈련과 평가전을 위한 소집명단 28명을 발표했다.

지난 3월 A대표팀에 승선한 한일전에 출전했던 이강인이 처음으로 올림픽대표팀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A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에 중복 차출될 가능성이 큰 선수는 사전 협의의 거처기로 했는데 이강인의 경우, 김학범호로 합류하게 됐다.

대신 합류가 유력할 것으로 보였던 원두재, 이동경(이상 울산), 송민규(포항) 등은 A대표팀의 선발로 함께 하지 못한다.

유럽에서 뛰고 있는 이승우(포르티모넨세)와 정우영(프라이부르크)과 분데스리가에서 K리그로 옮긴 백승호(전북) 본격적인 담금질을 위해 합류한다.

31일 제주도 서귀포에서 모이는 김학범호는 다음달 12일과 15일 두 차례 가나와 평가전을 갖는다.

올림픽대표팀의 공식 경기는 지난해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3개국 친선대회에서 이집트와 브라질을 상대로 평가전을 치른 이후 7개월 만이다.

가나와 평가전은 도쿄올림픽 본선에 나갈 18명 엔트리를 확정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가나는 올림픽 아프리카 예선에서 4위를 차지하며 3위까지 주어지는 본선 티켓을 어렵게 놓쳤다.

뉴스

◇올림픽 축구대표팀 6월 평가전 명단(28명)

▲GK = 송범근(전북) 안준수(부산) 안찬기(수원삼성)

▲DF = 강윤성(제주) 김진아(서울) 이유희(전북) 윤종규(서울) 김태환(수원 삼성) 이상민(서울이랜드) 정태욱 김재우(이상 대구) 설영우(울산) 이지솔(대전)

▲MF = 김동현(강원) 백승호(전북) 정승원(대구) 이승모 이수민(이상 포항) 맹성웅(안양) 김진규(부산) 이강인(발렌시아)

▲FW = 이승우(포르티모넨세) 정우영(프라이부르크) 이동준(울산) 엄원상(광주) 조영욱(서울) 조규성 오세훈(이상 김천)

그러나 코트디부아르와 준결승,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3~4위전에서 모두 승부차기로 패할 만큼 올림픽 본선 진출팀과 전력 차가 크지 않다.

한국 방문 전 일본에서 일본 올림픽 팀과 평가전을 치르기 때문에 시차 적응 등 컨디션 조절에도 큰 어려움이 없어 좋은 스파이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

에이스 류현진 vs 물오른 최지만...뜨거웠던 고교선후배 대결

동산고 선후배, 첫 맞대결 성사...탬파베이, 토론토에 6-4 승리 토론토, SNS에 "고교 선후배가 MLB에서 대결할 확률?" 메시지

Toronto Blue Jays @BlueJays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가 메이저리그에서 투타 대결을 할 확률은 얼마일까요? 🇰🇷

From Dongsan High School to The Show 🇰🇷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류현진과 최지만의 동산고 선후배 맞대결을 구단 SNS에 게재했다. (사진=토론토 트위터 캡처)

물오른 타격감을 자랑하는 최지만(30·탬파베이 레이스)이 '동산고 선후배 맞대결'에서도 헛웃 방방이를 돌렸다. '선배'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에게 2루타를 뽑아내며 최근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최지만은 2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 TD볼파크에서 열린 토론토와 원정 경기에 6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이날 토론토 선발 마운드에 류현진이 오르면서 둘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동산고 4년 선후배 사이인 류현진과 최지만이 서로를 상대하는 건 처음이다.

류현진은 KBO리그를 거쳐 2013년 미국 메이저리그로 건너갔고, 최지만은 2010년 고교 졸업 후 마이너리그에 뛰어 들어 빅리그에 입성했다.

류현진이 2020시즌을 앞두고 아메

리칸리그 동부지구 토론토로 이적했지만, 좌투수에 약점을 보이는 최지만은 류현진의 등판일에 선발 라인업에서 빠지면서 좀처럼 만날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최지만이 요즘 불방방이를 휘두르면서 류현진이 출격하는 이날 라인업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뜨거운 승부가 펼쳐졌다. 에이스 류현진도, 감 좋은 최지만도 헛사리 물러나지 않았다.

최지만은 2회 1사 후 첫 대결에서 2루 땅볼로 물러났다. 류현진은 직구와 커터로 차례로 던진 뒤 1볼-1스트라이크에서 3구째 싱커로 땅볼을 유도했다.

두 번째 대결에선 최지만이 웃었다. 최지만은 4회 2사 1루에서 류현진의 3구째 체인지업을 공략해 가운데 펜스를 직격하는 2루타를 쳤다.

메이저리그 복귀 후 매 경기 안타를 때려낸 최지만은 류현진에게 뽑아낸 2루타로 연속 경기 안타 행진을 7경기로 늘렸다.

최지만의 2루타에 힘입어 내달리던 1루 주자가 홈에서 아웃되며 타점을 거두지는 못했다.

세 번째 대결에서는 류현진이 최지만을 압도했다. 류현진은 6회 2사 1, 2루에서 최지만을 루킹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최지만은 삼진으로 잠은 시속 91.6마일의 바깥쪽 직구는 이날 류현진이 던진 가장 빠른 공이었다.

류현진이 7회 마운드를 내려가면서 최지만과의 맞대결도 마무리됐다.

류현진을 상대로 3타수 1안타를 기록한 최지만은 팀 승리로 쟁겼다. 탬파베이는 10연승을 달렸다.

탬파베이가 2-4로 뒤진 9회 선두타자로 나선 최지만은 타이러 헛웃에게 볼넷을 끌러냈고, 브렛 필립스의 적시타에 홈을 밟았다.

최지만의 득점으로 본격적인 추격을 시작한 탬파베이는 2사 만루에서 3연속 밀어내기로 6-4로 역전했다. 계속된 2사 만루에서 다시 타석에선 최지만은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4타수 1안타 1득점 1볼넷을 수확한 최지만의 시즌 타율은 0.400(25타수 10안타)이 됐다.

류현진과 최지만의 만남은 현지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었다.

토론토는 구단 공식 SNS에 한글로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가 메이저리그에서 투타 대결을 할 확률은 얼마일까요?"라는 메시지를 적었다.

경기 후 화상 인터뷰에 나선 류현진은 최지만과 맞대결에 대해 "하지만 이렇 처음 상대했다. 당연히 한국 선수들끼리 투타 맞대결을 하는 건 기쁘고 좋은 일"이라며 웃었다. 이어 "삼진을 하나 잡기도 하고, 안타도 맞았다. 지만도 너무 좋은 타자가 됐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재미있는 경기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추신수, 황재균, 강정호 등 앞서 투타 대결을 펼쳤던 선수들과 비교해서는 "다른 건 없었다. 준비했던 대로 세 타석 승부했다. 하나는 잘 맞았지만, 운 좋게 실점을 막을 수 있는 수비가 나왔다. 특별히 다른 건 없었다"고 덧붙였다.

뉴스

프로농구 MVP 송교창, KCC 잔류...5년 7억5000만원

지난 시즌 정규리그 53경기 평균 15.1점 6.1리바운드 팀 우승 기여

2020~2021시즌 프로농구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송교창이 전주 KCC에 잔류했다.

KCC는 24일 "자유계약(FA) 자격을 얻은 송교창과 계약기간 5년, 보수 총액 7억5000만원(연봉 5억2500만원·인센티브 2억2500만원)에 계약했다"고 전했다.

송교창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53경기에서 평균 15.1점 6.1리바운드(이상 국내선수 2위) 2.2어시스트를 기록하며 KCC가 5년 만에 정규리그 정상에 탈환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고졸 출신으로는 최초 MVP다.

송교창은 고교 졸업 후, 대학에 가지 않고 곧장 프로에 진출했다. 2015

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3순위로 KCC 유니폼을 입었다.

송교창은 "먼저 좋은 계약을 통해서 KCC에 남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KCC 정몽진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KCC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해서 KCC에서 마무리하고 싶은 KCC인이다. 이번 계약을 종신계약이라 생각하고, 은퇴하는 순간까지 KCC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